

‘도둑놈은 한 죄, 잃은 놈은 열 죄’



전일칼럼

이용환
논설실장

지난 14일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일가족 살해 사건은 끔찍하다 못해 충격적이다. 부모와 아내는 물론이고 2명의 자녀까지,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차마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지른 범인은 악마였다. 도대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믿겨지지 않을 정도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귀가하는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의 사건도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 범행 사흘 전부터 인터넷에서 ‘살인’, ‘경동맥 찢르기 연습’, ‘살인 계획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검색했다는 그의 행각은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다.

범죄의 나라 전락한 대한민국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치안

만큼은 전 세계의 부러움을 받던 나라였다. 한밤중 여성이 혼자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나라,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려도 다시 찾을 수 있는 나라라는 국민들의 자부심도 높았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면 온갖 범죄가 들끓고 흉악범이 활개 치는 그야말로 범죄의 나라로 전락했다. 귀가하는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하고,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은 언제부터인가 일상이 됐다. 중간 소음을 이유로, 화깁에 방화를 서슴지 않는 보복범죄도 끊이지 않는다. 법원에 난입해 시설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도 부족해 자신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면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거나, 공공기관을 불태우겠다고 공공연히 협박하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도 비밀비재하다. 자유를 방종으로 인식하고 공권력에 대한 저항을 영웅시하는 못된 풍조가 만든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끔찍한 범죄가 판을 치고 세상이 이렇게 무섭게 변한 것은 우리 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고 가치체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과거의 건강했던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정치부터 경제, 사회까지 모든 분야에서 범죄를 부추기는 듯한 혼란과 혼돈에 휩싸여 있다. 말짱한 도로나 건물이 어처구니없이 무너져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바다와 하늘에서 인재(人災)로 인한 대형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을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을 조롱하듯, 온갖 불법과 탈법에 더해 뻔뻔함까지 보여주며 제 밭그릇만 챙기겠다는 정치권의 몰염치도 나라의 근본을 위협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적 불확실성과 함께 사회적 양극화가 만든 폐해도 임계점을 넘어섰다. 빈곤층의 증가와 빈부격차 심화는 타인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집단으로 나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도 서슴치 않는다. 이른바 ‘떼법’이다. 더 한심한 것은 도저히 안될 것 같은 일도 ‘떼법’을 내세우면 해결이 된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제 40여일 후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때맞춰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도 저마다 나

름의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열심이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아무리 둘러봐도 서민을 위한 배려나 함께 잘 살기 위한 고민 등은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나라, 정권교체, 청년, 중산층, 청렴, 정직 등 그들이 내세운 구호도 현실성 없기는 마찬가지다. 절대빈곤층이 늘어나고 중산층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에서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정치교체를 이룩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그들만의 공약일 뿐이다.

빈부격차 해소로 희망 살려야

이번 대선이 중요한 이유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응하고 세대·계층간 사회적 갈등을 해소시킬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데 있다. 사회 곳곳에서 정의와 도덕이 사라지면서 온갖 무질서와 불법이 횡행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우습게 보는 인명경시, 크게 ‘한탕’ 성공하면 그동안의 범죄행위가 없어질 것이라는 헛된 꿈을 깨뜨리는 것도 새로운 정부에 주어진 과제다. 모두가 쉽게 일하고 세상을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풍조,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좋고 잘살면 그만이라는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절대 고립에 처한 계층을 돕고,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구성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 주는 것이다. 노인과 장애인은 물론이고 극단적 빈곤층까지,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도 촘촘하게 짜야 한다. ‘출구 없는 삶’이 만든 절망이야말로 범죄의 뿌리다. 자신의 과실과 몫을 이웃과 나누려는 ‘사회적 배려’도 되살려야 할 가치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는 주린 배를 안고 빵을 훔치거나, 생을 포기하려는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범죄를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게다. 모두가 못한 정치인들의 책임이다. 그 정치인을 만든 우리의 잘못이기도 하다.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만의 허황된 공약, 정의와 공정은커녕 양심도 진정성도 없는 헛된 공약은 정치인이 국민에 저지르는 또 다른 범죄다.

이제 그 범죄의 근원적 단초를 준 국민이 책임을 지고 그들을 단죄해야 한다. 우리 옛 속담에 ‘도둑놈은 한 죄, 잃은 놈은 열 죄’라고 하지 않았던가.

정답만 고르게 하는 교육, 비판적 사고 가로 막는다

전일광장

이기연

한국지방정부연구원
장·교육학박사



4월 말에서 5월 초는 대부분 학교의 중간고사 시즌이다. 이 기간 학구열이 높다고 알려진 아파트 단지나 학원 근처의 카페에 학부모들의 이용 빈도는 현저히 낮아진다. 학부모들이 자녀의 시험 공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트에서 장보는 시간도, 지인들과 답소를 나누는 개인 시간도 줄이기 때문이다. 시험기간에 모든 것을 제쳐두고 공부에만 올인 하는 풍경은 중·고등학생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학생들도 대학 도서관을 비롯하여 분위가 괜찮

은 동네 카페에 모여 공부에 매달린다.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기이한 현상이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입학 시험은 교육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다. 수능이라는 한 번의 평가로 십여년간의 교육과정이 성공이나 실패나로 갈린다.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갈수록 사교육의 대상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상대적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해외에 ‘hagwon(학원)’은 대학 진학을 위한 거대한 입시 산업으로 소개되었고, 학부모의 교육열과 과도한 사교육비 등은 한국 교육의 모순점으로 지적되었다.

더욱 큰 문제는 공교육은 물론이고 사교육까지 인생의 대부분을 학습에 쏟아부은 청소년들이 과연 무엇을 공부했느냐

하는 것이다. 아마도 대학입학 시험을 잘 치르는 방법을 공부하지 않았을까? 수능에서 정답을 잘 골라내는 방법만 터득한 셈이다. 학생들이 갈수록 정답을 잘 골라내니,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킬러문항’을 만들어내느라 일부러 시험문제를 최대한 어렵게 만든다. 원어문도 풀기 힘들게 출제된 외국어영역 문제를 비롯하여 오답속 정답을 고르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객관식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한 교육은, 시험에 출제된 지식이 옳고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폐쇄적인 사고를 하도록 훈련되는 결과를 낳는다. 서울대 재학생의 학점 잘 받는 방법은 교수의 강의를 녹음하고 받아 적어 토씨 하나 빼지 않고 그대로 외워서 적는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 학부 학생의 공부 비결은 우리 교육이 얼마나 심각

한 지경에 왔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정치적 혼란을 접하며 국민들은 분노했고, 답답해하고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원인을 교육에서 찾아보자면 ‘비판 교육’의 부재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비판과 비난을 유사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하나의 주제로 각자의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불편해한다. 토론의 참여자들이 평등한 주체가 아닐 경우 더욱 그러하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의 의견에 반대 입장을 내놓거나 논쟁하는 것을 피하고, 그들의 의견에 순응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안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불합리하거나 불평등한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동료 혹은 교사와 그러한 사안에 대해 비판적으로 대화해 본 경험을 갖기 힘들다. 성인이 될 때까지 주제적으로 사고하고 결정하고 행동한 경험이 얼마나 될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은 대학입시에서 높은 성적을 내기 위한 정답을 고르는 훈련이 아니라 일상에서 경험하는 비판적 사고와 토론을 통해 가능하다. 무수히 쏟아지는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역량, 국민들을 조롱하듯 아무 말이나 내뱉는 정치인들의 수준을 가능하게 하는 역량, 어떠한 선거 공약이 실제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역량 모두 비판적 역량을 통해 가능하다.

대한민국 역사상 국민이 선출한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국민들은 왜 이러한 선택을 하였었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사람은 교육을 통해 바꿀 수 있고, 교육을 통해 바뀐 사람은 사회를 바꿀 수 있다. 1995년 ‘5·31교육개혁’ 이후 줄곧 교육을 바꾼다며 입시의 틀만 바꾸어 왔다. 이제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교육의 근본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6월에 탄생할 새로운 정부에서는 진정한 교육개혁을 기대한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